

- 본문 : 에베소서 6장 5~9절
- 제목 : “성경이 말하는 직장생활”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5.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9.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날처럼 노예제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이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울 당시 로마제국에는 7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고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학대를 당했다. 그런 노예들이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할 때 현대사회 속에 있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먼저 종들은 매사에 상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5절은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5절)
2. 종들에게 강조하는 핵심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본문의 내용을 있는 대로 찾아서 정리해 보라. (5~7절)
3. 6절 상반절 말씀처럼 피고용인이나 공무원들이 처신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갈등과 진통을 겪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나누어 보라. (6a절)
4.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종들에게 일어나 개혁하라고 선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종과 성실을 말한다. 이런 교훈이 역사적으로 노예제도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조. 롬12:1)
5. 이제 상전들에게는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9a절)
6. 상전들이나 종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똑같은 생활태도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9b절)
7. 당신은 이 본문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상호 복종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가? 그 밖에 본문 안에서 묵상되는 교훈은 무엇이 있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노예 생활도 거룩하고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신의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당신의 직장은 “거룩한 일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라”는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직업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 말씀기도제목

1.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일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터”를 향한 성경적 직업관을 갖게 하옵소서.
2. “순종과 성실” 그리고 “존중”의 관계로 함께 거룩한 일터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주께 하듯 서로 순종하는 직장생활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 모든 성도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터” 되게 하사 대한민국과 1,000만 개신교의 변화를 선도하는 “3.5% 소금” 되게 하옵소서.

